

2003년 교회표어
언제나 무지개를
바라보라
(창 9:13)

함즐함울

Presbyterian Church of the Lord Weekly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대한 예수교 장로회 주님의 교회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통권 제 58 호 / 발행일 : 2003년 11월 9일

해바라기, 이젠 주바라기로!



지난 주일 해바라기 콘서트 이모저모

11월 2일 주일 저녁 7시 본당에서 성도 및 초청자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바라기(이주호, 이광준, 특별출연 조성곤 집사) 콘서트가 있었다.

콘서트의 타이틀은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우리나라의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상처받은 가정들을 보면서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해바라기가 최근에 만든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곡이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이었다. 이번 콘서트는 외부에는 콘서트로 내적으로는 전도 집회로 이루어졌다.

해바라기 콘서트 시작 3시간 전 현장의 분위기는 해바라기와 온 스태프들이 가장 좋은 음향과 영상과 집회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식사시간도 뒤로하고 비지땀을 흘려가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모습이었으며, 외부에는 다과를 준비하는 봉사부원들과 차량 주차를 안내하는 주차부원들 그리고 각종 안내원들이 발빠르게 콘서트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 식당에서는 오후 5시부터

터 그 동안 각 교구와 구역별로 이번 콘서트에 교회다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초대할 분들과 초대받은 200여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며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이 진행되었다.

콘서트 입장은 저녁 6시 2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아래층 강당은 거의 10여분 만에 가득 차고 뒤늦게 온 분들은 안내부원들의 친절함 안내로 2층으로 안내되었다. 본격적인 콘서트에 들어가기 30분전에는 초등부 찬양(율동)팀이 신나는 곡들에 맞춰 율동을 모인 회중을 위해 선보이므로 콘서트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었다.

본격적인 콘서트는 저녁 7시 10분에 미리 준비한 해바라기 동영상과 임동진 장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해바라기 콘서트는 크

게 4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부분은 해바라기가 데뷔한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에 주로 히트했던 추억의 노래들로 구성했고, 두 번째는 2003년 1월 이후 새롭게 내놓은 신작들로 구성했으며, 세 번째는 해바라기가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체험하고 영접한 요즘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직접 곡을 붙인 시편 121편과 시편 23편의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를 불렀다. 마지막 네 번째는 특별 게스트로 우리교회 음향 기사로 섬기고 있는 조성곤 집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찬양과 이번 콘서트의 타이틀곡인 “아름다운 약속”을 담임목사의 선포문 연주와 함께 부르는 부분이었다.

해바라기 콘서트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친구와 연인들이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해바라기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 4면에 계속

사진 꼭 찍으세요

2004년도 교인사진수첩 제작을 위하여 지난 10월 26일부터 강당로비(교회입구)에서 무료로 사진을 찍고 있다. 새로운 사진을 올리고 싶은 교우나 한 번도 사진수첩에 올리지 않은 새 교우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다. 주일이면 가장 좋은 복장을 입는 교우들에게 있어 손쉬운 기회이다.

이 일을 위해 친절하게 맞이하고 계신 (주방부) 7교구의 김종걸 집사님은 전문적인 사진작가는 아니다. 사진수첩 담당하고 있는 홍보출판부장 김홍용 집사의 부탁으로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여행을 좋아해 사진 찍는 게 취미라 사실상 사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즐겁게 일하고 있다. 초록색 안내판을 배경으로 서서 찍고 있는데 주일이어서 교인들이 단정한 옷차림 이기에 사진이 잘 나오고 있다”

11월 2일 주일날은 16분의 교우들이 사진을 찍었다. 11월9일

오늘 오후 1시까지 1층 로비에서

오늘까지 사진촬영은 계속된다. 1층 로비에서 초록색 안내판을 찾으면 편안하게 맞이하시는 김종걸 집사님이 보일 것이다.

그분 인도 따라 2004년도 교인사진수첩에는 잘 찍힌 사진이 올려지길 기대한다.

예수전도단과 함께 하는 목요모임

“새벽이슬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80년대와 90년대 CCC(한국대학생전교회)와 함께 대학생전교회와 청년제자훈련, 찬양예배와 세계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예수전도단’(YWAM)은 미국연합장로교 파송선교사인 David Ross(한국명 오대원 목사)목사에 의해 시작된 단체로 홍성건목사(통합측 목사)가 대표로 있

다가 우리 교회 등록교인 문화곤목사(합동측 목사)가 대표로 섬기고 있다. 예수전도단(Youth With A Mission, Korea)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모든 세대들을 일으켜 온 세계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재난지역과 빈곤으로 고

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을 찾아가 구제 및 의료봉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예수전도단은 정기적인 모임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갖고 있는데, 11월 6일부터 주님의교회와 연합하여 30,40대 를 위한 ‘목요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



예배실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목요모임은 찬양과 경배, 말씀, 간증 및 성도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모임

이며 강남과 송파지역 직장인과 주부들에게 커다란 영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장신대에서의 수험생기도회 60여명이 참석 서로를 위해 기도

11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소예배실에서 있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포함 30여명의 성도가 참여해 먼저 교구별로 담당 목사에게 진행되는 교구별 기도회와 담임 목사의 설교와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던 전체 기도회에 참석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격려와 용기를 심어 주었다. 11월 5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 교회 협력센터 새문안

홀에서 60여명의 수험생 학부모가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이 날 모인 학부모들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린 학부모 기도회 때 참석한 분들이 주를 이루었다. 기도회는 김현령, 고승제, 문희곤, 황병기 전도사의 인도로 진행되었고 학부모가 아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수기관선교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부서

기관선교 위원회에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특수기관선교회를 소개한다.

특수 기관선교회가 하는 일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특수한 기관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의 여러 가지 모양의 선교형태를 보게 된다. 모임을 지향하기보다 교회와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특수한 선교현장을 연결시켜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간접적으로 선교가 되도록 하는 부서이다. 또한 교회와 교회사이에 행해져야 할 일도 맡아 활동하고 있어 교회와 다른 기관과 원활한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는 노회 및 시찰회의 상회비 등의 적시완납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일과 서울 모테트 합창단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조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헌신하고 있다. 또한 한정협(귀순동포정착지원협의회)과의 긴밀한 협조로 탈북자의 신앙 정

착지원에 기여하려 노력하며 각 단체의 파생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단일창구로 지원하고 있다.

로템(교정)선교회는 교도소에서 마약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교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곳으로 이드보라 집사가 헌신하여 그들이 치료받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그 선교회가 잘 헌신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정서, 자폐 장애인)의 극빈자나 결신자를 위해 도움을 주고 선교를 하여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지원하고 있다.

추후 내년도에는 더욱 뚜렷하게 특수기관선교회가 교회의 비전을 집중적으로 제시할 곳을 찾기를 기도하며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

박용천집사

여선교회 연합월례회

비슷한 연령끼리 함께 모여 봉사해요

11월 4일 화요일 11시에 소예배실에서 여선교회 연합예배를 드렸다. 김성관 목사는 마태복음 7장 7-12절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많은 은혜가 되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고 사람을 섬겨라' 하셨다. 사람은 기대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섬겨야 할 존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사람을 더 의지하고 기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다. 둘째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기에 하늘 창고에 그냥 쌓여 있다는 것이다. 구하지 않았기에 밀려있는 복들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다. 셋째는 복을 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선지자니라" (마7:12)

우리들은 복을 많이 받아서 이것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하셨다. 진정한 행복은 이웃을 섬기고 베풀 때 생기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더불어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평생을 가난하고 고통 받는 자들을 섬기며 살다가 가신 테레사 수녀의 삶을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지하식당에서 근사한 점심도 맛있게 먹었다. 잊고계 처음 연합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예배라니 세월이 빠름을 다시금 실감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1여선교회에서 6여선교회까지 있다. 각 여선교회 모임을 통하여 서로 친목도 다지며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도 함께 나누는 참 좋은 여선교회이다. 서로 비슷한 연령으로 이루어진 각 선교회는 비슷한 생각과 신앙 연륜으로 이루어져 서로 믿음 생활을 나누기에 아주 좋은 단체이다.

이번 월례회는 그동안 수고하신 임원들의 결산이기도 하면서 또한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는 월례회이기도 하다. 여선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에 앞으로도 주님의교회 여성교우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교회의 구석구석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선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참으로 좋은 모임임을 이렇게 지면으로 밝히고 싶다. 꼭 2004년도에는 주님의교회 여성들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서로 기쁨과 은혜로 믿음생활을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막내인 6여선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서 활기가 넘치고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이번 연합 월례회에서 새롭게 임원으로 선출된 분들이 있다. 내년에는 주님의 교회 여선교회가 그 임원들로 인해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해 나갈 것이다.

이상숙집사(6여선교회 회장)

[권사회 월례회]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지난 10월 21일 권사회에서는 월례회를 야외에서 가졌다. 일정은 서일농원(전통 된장 마을)과 매봉 감리교회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고계 방문으로 잡았다.

출발 전 비가 세차게 내려 마음이 무거웠으나 서일농원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비도 그치고 밝은 햇빛과 상쾌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잊기 쉬운 자연의 혜택을 다시 한번 고마워하며 감사하였다.

충남 청원군 병천에 있는 유관순열사 생가 옆에 있는 아담하고 깨끗한 매봉 감리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를 드렸다. 유관순열사가 애국소녀로 성장하기까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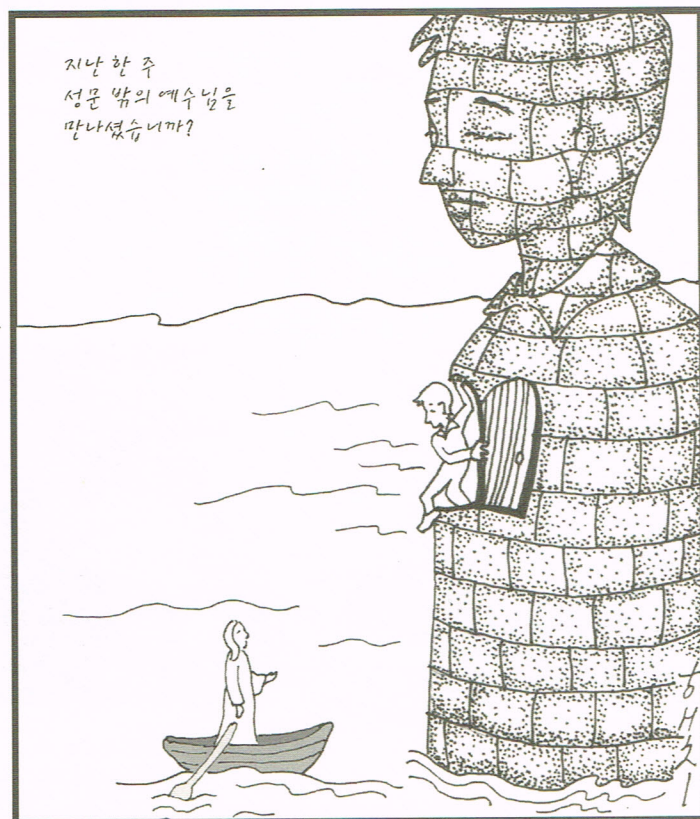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스러운 율부짓음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도 자주 독립의 꿈을 주시어 그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담대히 자유와 정의를 외치게 하고 혼란과 위기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었다.

매봉 감리교회는 1908년 설립되었고 신앙심과 애국심을 깊이 전하고 이어받기 위하여 이화재단에서 기념교회를 재건축하기로 뜻을 모아 1998년 9월 14일 봉헌한 역사적인 교회였다.

돌아오는 길에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자연의 질서가 얼마나 큰 아름다움인지 새삼 느끼며 손뼉을 치면서 40장 찬송을 불렀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동순 권사



지난 한 주
성문 밖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설교통역사역팀 유중렬집사에게 듣는다]

시작은 미약하나

설교 영어 통역 서비스가 주일 2,3부 예배시간, 4층 예배당 입구에서 행해지고 있다. 26일, 두 달째 진행되고 있는 통역과 정과 여러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기 위해 4층 예배실 입구로 향했다. 3부예배후 안내를 담당한 유중렬 집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설교 영어 통역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교 영어 통역 서비스는 지난 8월 중순경에 발족하여 9월 첫 주에 예행연습을 한 뒤 둘째 주부터 매주 2, 3부예배마다 교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통역담당이 바뀌며, 예배전날 토요일 설교문구를 받아서 새벽 두세 시까지 준비한 후, 다음날 아침 9시까지 4층예배실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1명은 통역을, 그리고 6명이 안내와 그 밖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시간이 짧고 힘들지만 통역하는 중에

도 예배드리는 마음을 잃지 않고 성실히 임하고 있는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통역팀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18명입니다. 정현희목사, 이병식장로, 팀장인 김영숙C권사, 총무인 박원석집사, 행정에 남장희집사, 심재련성도, 이춘실집사, 이희숙A권사, 정지혜, 최병욱집사, 본인 그리고 통역에 김하연, 김현성, 안소연, 최수진C, 한진희집사, 허운영, 홍성민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며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 성경공부팀, 외국1.5세대들과 동시통역팀 원등이고 오늘2부에는 13명이, 3부에는 21명이 이용했습니다. 매예배마다 평균16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빌려가고 있어서 활성화 되어간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관심을 점점 더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송실에서 불륨조절이 잘 안되어 소리가 울릴 때 지적해주는 분들도 있고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는 분도 있

습니다.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말할 때 기쁨을 느끼고, 정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나 혹은 통역 서비스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는지요?

앞으로 호텔 등에 안내 홍보를 해서 외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욱 활성화 된다면 중국어와 불어도 같이 통역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성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용시 기계대여와 반납을 잘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4층 예배실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므로 옆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불륨조절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아직 초창기라 매끄럽지 못함을 양해해줬으면 좋겠고, 담임목사를 위시한 장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현희목사와 이병식장로의 적극적인 인도와, 노력하는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선교회]

청년이 살아야 교회도 나라도 산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 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6.25의 고통중에 남,북을 분단국가로 남게 하심은 군대라는 가두리와 같은 황금어장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주시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한반도는 비록 햇볕 정책이 표방되고 있고 금강산 유람선이 오가고, 육로로 1,000여명이 다녀왔지만... 남,북 간에 마음을 여는 진전한의미의 대화의창은 단한채 잠수함과 미사일 핵개발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있는 냉전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의 젊은이 들은 군대라는 울타리안에 들어와 힘든 인생의 수련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특수한조직, 국가와 민족을위해 목숨을 초개와같이 바칠수 있는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해야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하며 미지의 상황속에 두렵고 심리적 영적으로 초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그 말씀과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줄 곳 그곳이 훈련소 명실공히 황금어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입대전 복음을 받고 들어오는 장병을 전체의 약10%로서 3만명쯤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 매년 세례받는 22만명과 이들 3만명을 합하면 군에서는 매년 25만의 세례받는 젊은이들을 사회교회에 충원해 갈수있게 됩니다. 군 선교연합회에서 목표한 2020년 까지 매년 25년동안 그수는 625만명이 될것이며 대부분이 한가정의 가장이 될것이고 본인을 포함하여 4명 평균의 믿는가정을

형성하게 될것입니다. 이것은 이땅에 2,500만명의 새로운 믿음의 백성이 세워짐을 뜻하며, 현재의 1,200만명을 합치면 이땅을 3,700만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시의 인구비율로는 약70%의 국민이 크리스찬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매년 22만명의 젊은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일(세례활동을 돕는일), 둘째 세례받은 이들을 양육하는일(미래출석교인양육), 세번째는 제대하여 돌아갈 고향교회나 대학선교회에 연결시켜서 미래신자로 등록하고, 이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주고, 매월 전도및 위문편지를 발송하며, 특별한 절기에 위문품을 보내고, 위문 심방을하고, 휴가나 외박시 교회로 초청하고, 전역시에는 환영예배로 영접하며, 병행하여 그들의 가족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일입니다.

한반도의 특별상황은 남북이 평화공조체제가 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통일이 이루어질 것 입니다. 그렇다면 군은 현재의 반이상으로 줄여야하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직업군인화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우리의 황금어장은 없어지게 되고 매년 20만명 이상씩 이땅의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세례주고 전도하는 수확의 타이밍도 아깝게도 흘러가 버리게 되며 그때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게 될것입니다.

우리와 이웃하고있는 어떤나라도 어떤민족도 이런 복을 받은 나라와 민족이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땅,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주시는 주님의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통성한 가두리 황금어장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지려고...

군복음화를통한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군선교부에서는 전방부대와 결연하여 장비, 시설지원, 위문활동등 신앙전력화에 기여하고 미래출석교인(연결군신자)을 성공적으로 양육하며 군입대 교

인자녀 군생활동안 공백이생기지 않도록 양육하며 입대 전 비전캠프와 군선교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안수집사

[최전방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방에서 온 편지

할렐루야!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중동부 전선에 위치한 육군 승리부대에서 근무하는 일병 김동우입니다. 승리부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울긋불긋한 단풍의 자태를 자랑하던 산야에서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 찬바람이 싸늘한 최전방 부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영하 40-50도의 살을 에는 고통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군 장병들과 가족들에게는 큰 걱정입니다.

슬픈과 고통의 크기란 겪을 때마다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매년 겪는 겨울이지만 또 다시 가장 출게 느껴지는 건 씩씩하고 강인한 군인이라해도 어찌할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길 거란 믿음이 있기에 우리 승리부대원들은 오늘도 빛나는 눈동자로 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교회에 가 보니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 번쩍 들어온 건 뜻밖에도 새 온풍기 2대와 피아노 한대. 마치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의 소망이라도 이뤄진 것처럼 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이 곳 전방의 열악한 난방시설과 여건을 염려한 주님의 선물...

주님의교회에서 이 고마운 선물을 제 공하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외된 지역에도 여전히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승리교회는 매 주 2-3백명 정도의 병사들이 찾아오는 믿음의 장소이며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동안 바깥 세상의 따뜻한 손길을 접하기 어려운 장병들에게 이번 선물은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할 때 따뜻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고운 피아노 선율에 맞춰 부르는 승리교회 형제, 자매들의 찬양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려 하늘까지 닿을 것만 같습니다. 이제 영하의 기온에도 마음만은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지요.

추운 계절 주님의교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승리교회에 큰 힘을 주시고 장병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필승!

중동부 전선 승리부대 교회에서
일병 김동우 올림

[교회소식]

순례단 2차회의 오늘 오후1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등 3개국을 2004년 1월초, 중순에 15일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는 주님의교회 성지순례단 모집에 25명정도의 성도들이 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여행사섭외, 각종예약 등의 실무를 담당할 총무, 회계를 선출하기 위하여 2차 성지순례단 회의가 오늘(9일) 오후1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신청하였거나 관심이 있는 분도 참석바랍니다. (30명 이상이 단체로 인정받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

입교 및 세례식이 12월3일 오후8시 수요일 성경공부시간에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를 원하는 분은 오늘(11월9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30일까지 매주일 오후1:30-2:30에 제3집회실에서 네번 있을 입교 및 세례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례는 6개월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만1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교적내용 확인

2004년 교인사진수첩제작을 위하여 개인별교적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이번주일과 다음주일 2주에 걸쳐 교회복도에 게시될 개인별교적 출력자료에 직접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구사역자들을 통하여 파악되고 수정된 자료입니다.

사진제출 및 임시사진관 운영은 오늘(9일)까지입니다.

교인사진수첩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가 바뀌신 분은 사무실에서 기재사항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까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습니다.

도서실 주일오픈 8시30분

도서실이 주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개관됩니다. 1부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도서실은 주중 매일(월요일은 휴관)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칠성판(七星板)대신
“고정판” “시정판”
으로

우리의 장례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으나 아직껏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때마다 목회자가 직접 시신을 다루는 일이 많다. 이때 시신이 반듯하게 굳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빤지를 시신 밑에 깔고 손발의 위치를 반듯이 잡아준다. 여기에 사용되는 널빤지 사용의 전통적인 관례가 이 널빤지에 복두칠성을 본 따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었다 하여 ‘칠성판’이라 부른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도 적당한 이름을 못 찾아 ‘칠성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유래는 별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도교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토속 신앙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신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순수하게 ‘고정판(固定板)’ 또는 ‘시정판(屍定板)’으로 부름이 타당하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성도간증]

찬송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것

저는 1부 호산나 찬양대에서 약13년간 함께 찬양하시는 연세 높으신 분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교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1년생이므로 저보다 몇 년 선배되시는 분들, 또한 비슷한 분들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그러한 형편입니다. 저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시는 교우님들은 어떠한 느낌으로 듣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 잘한다고 생각하실지 반대인지는 잘 몰라도 그러나 저희 모두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사명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 중 젊은 분들을 가리켜 “보배”라고 합니다.

호산나 찬양대는 대장에 신정웅 집사님이 많은 수고를 하시고 총무로 김학원 집사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한 재능을 갖지 못한 저희를 인도하시는 지휘자는 정신여고 노래 합창단을 맡고 계시는 박영주 집사님이고 반주로는 유명하신 김시원 집사님께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호산나 찬양대원 한사람 한사람은 혹시 자신이 빠지

면 찬양을 그르칠까봐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6시까지 교회에 도착하는 열심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들 할까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을 모든 대원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간증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강제로 시킨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찬양대원으로 있을 때, 잘하진 못해도, 열심히 하자”란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하기 위해서 집에서 아는 찬송이라도 열심히 부르자 생각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500여장되는 찬송을 모두 불러봅니다. 부르면서 느끼는 것인데 삶이 어려울 때는 어려운데로 기쁠 때는 기쁨으로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찬송가 73장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자주 부르게 되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돌아보면서 292장이나 295장을 자주 부르게 되는데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몫으로 부르는 찬

송으로 내용이 나를 새롭게 하며 용기를 주며 신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겠구나 다짐하는 계기가 되곤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할 때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주님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면 찬송 292장 3절 “평생에 행한 일 되돌아보니 부끄럼뿐이라 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날 용서하시리니 생명의 면류관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부끄러운 삶이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시면 문제없다는 놀라운 복음을 찬송을 통해서 듣게 되고 부르게 되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저는 찬송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게 고통과 실망을 주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내가 당한 고통은 뒤로하고 남에게 준 고통과 실망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삼시다. 그러면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찬송을 잘 못 하신다구요? 조금만 노력이 있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100% 음치는 없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시간을 내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특별히 찬양의 힘을 느끼면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찬양대로 나오십시오. 모두가 여러분을 반가이 맞이할 것입니다.

계학용 장로

찬송하면서 삼시다. 그러면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극복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콘서트 (1면에서 계속)

자신의 지나간 인생의 옛 추억과 “사랑”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음향이나 영상, 무대 분위기 등 어느 방송국 콘서트 실황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기술을 보여주었다. 콘서트의 휘날리는 해바라기의 대표곡인 “사랑으로”로였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이번 콘서트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간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를 부를 때 학교 강당은 크게 울렸다. 그러면서 이 땅 곳곳에서 지금도 희망과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 깨어지고 나누어진 가정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뿐임을 다시 한번 진하게 느낄 수 있었던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앞으로 이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다양한 연령과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해바라기 콘서트 전 초청 식사 시간